

자발적인 생산자의 참여가 급선무

식 품으로 사용되는 계란의 생명은 신선도이다. 채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기간동안 계란으로서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신선한 계란중에서도 위생적인 측면까지 재고하게 되었다.

또한 채란양계산업에 있어 가장 비합리적인 요인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즉 유통구조상의 무질서로 인해 항상 소비에 활력적인 신축성을 보이지 못해 더욱 채란양계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라는 3대 맥락으로 구분지워져 각자의

시각에서만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 유통성 없는 산업으로 밖에 될 수 없었다.

결국 생산자는 계란생산이 부족할 때나 과잉시에 유통상인의 울가미에 걸려 그들이 흔드는대로 따라다니는 약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생산자들이 차츰 유통단계를 줄여 공급조절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게 되었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은 현재 1일 70만개 정도의 계란을 유통시키는 생산자조합이다. 1일 서울의 계란소비량은 약 8백만개로 추산되는데 이중 150만개가 공업용수요이고 나머지 73%가 식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은 최

근에 들어 생산자의 비협조와 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상인의 농간 때문에 창고에 계란이 500만개가 체화될때도 있었으나 계란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조합원이 손해를 본다는 각오로 출하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이 서울경기 일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국의 계란유통 조절을 원활히 할 수 없어 88년 12월 중에 천안양계조합 및 전북양계협동조합을 문을 열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펴 연결망을 넓히게 되었다.

다시 89년 11월에 광주 및 안성에 계란집하장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계란유통 구조확립, 산란계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격조절 역할, 비생산적인 유통마진과 유통

통부조리의 근절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자체적인 수급조절로 가격의 평준화를 위해 한곳에서 1일 60만개를 취급할 수 있는 집하장을 2군데에 갖추게 되었다.

광주집하장은 총 토지 691평, 건평 205평에 계란선별기 2대를 설치하여 총 3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안성집하장은 토지 907평에 건평 180평으로 계란선별기 2대를 설치, 시설자금 총 2억6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자금은 광주가 보조금 30%, 융자 50%, 자담 29.6%로 되어 있으며, 안성은 융자 40%, 자담 47%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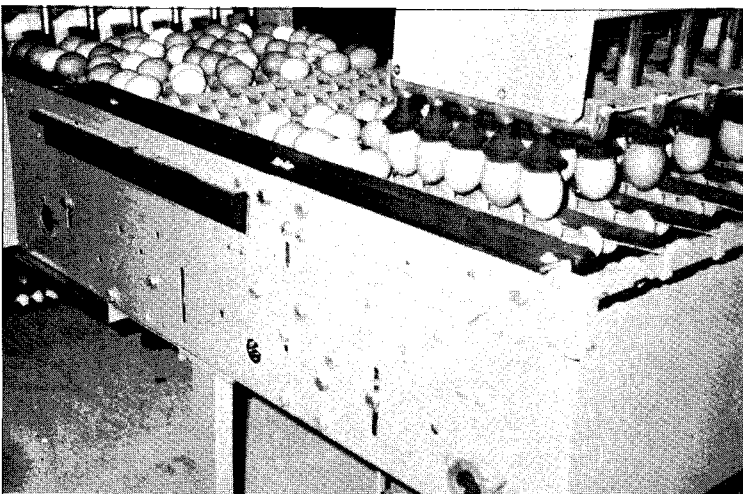
현재 1곳의 처리물량은 1일 총 30만개인데 이중 선별시켜 출하하는 물량이 15만개 정도이고 15만개는 상인을 통하여 농장에서 직



▲광주집하장 준공식 광경

접 출하시키고 있다.

광주지역의 계란생산량은 1일 120만개로 추정되는데 조합원 물량이 60만개로 나타나 앞으로 보다 사업이 확대될 경우 최대 2배



▲계란선별기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은 현재 1일 70만개 정도의 계란을 유통시키는 생산자조합이다. 1일 서울의 계란소비량은 약 8백만개로 추산되는데 이중 150만개가 공업용 수요이고 나머지 73%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선별기를 거치는 계란은 15만개 정도이지만 전량 처리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해진다.

또한 계란판매에 있어서도 도매 상인에게 계약하여 판매하는 양이 27만개, 공판장판매 15만개, 공업 용납품 15만개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중 전량이 선별을 거치게 될 경우 파란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거래 대금을 대부분 생산자에게는 10일간격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상인과는 계약보증금을 유치하거나 현금으로 하고 담보설정시는 10일 또는 1개월이나 2개월에

걸쳐 정산을 하고 있다. 2개월기간은 고정납품처가 주로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가동에 들어간 광주 및 안성 집하장의 경영은 아직 미흡한 실정에 머물고 있다. 그간 총 9백만개 정도를 유통시켜 약 4백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집하장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보다 생산자들의 비협조라고 꼽고 있다. 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나아가 유통조직을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아직도 대다수의 채란양계인들이 그저 편리한 방법에 따라 상인과 거래를 하고 있어 요즈음 같이 계란값이 좋은 때도 이중시세에 휘말리는 사례를 빚고 있어 집하장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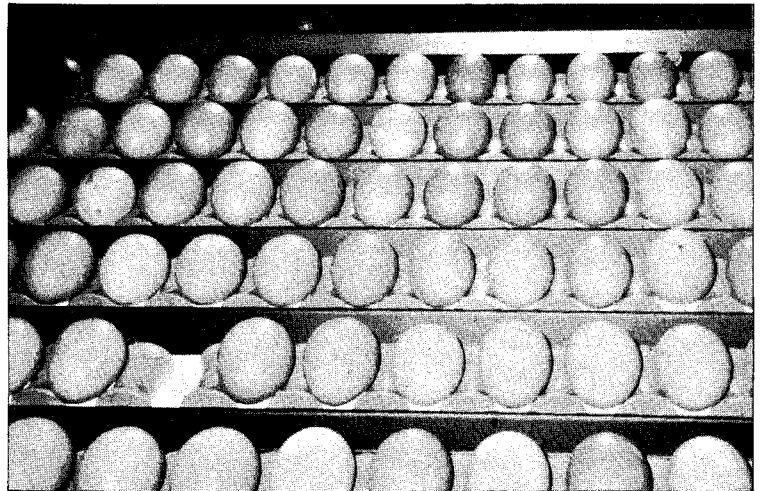
에 직·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일부에서 조합과 거래할 경우 수수료를 계란 1개당 50전씩 떼고 있는데 이를 아까워한 나머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상인들이 생산자가 유통을 장악했을 때 그들의 위상에 위협을 느껴 집하장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1일 유통되는 계란은 총 2천만개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이중 G. P 처리된 계란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G. P 처리(세란까지 처리)된 계란은 1개에 일반란보다 시장소비자가격이 10원 정도 비싸

“
계란판매는
도매상인에게 계약하여
판매하는 양이 27만개,
공판장판매 15만개,
공업용 납품 15만개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중 전량이 선별을 거치게 될 경우
파란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



▲농장에서 들어온 계란이 집하장에서 검란되고 있다.

계 유통이 되는데 집하장에서 처리하는 계란은 오란 및 파란만 제거하고 중량별로 선별만 하여 상인에게 1개당 3원50전을 붙여 유통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계란유통(주)나, (주)한냉통상과 같이 대규모 계란유통업체와도 연관을 맺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물량을 일시에 처리할때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조합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넓히고 있으며 90년도에는 성남을 포함 5개소에 집하장 및 공판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 조합 중심의 G. P 산업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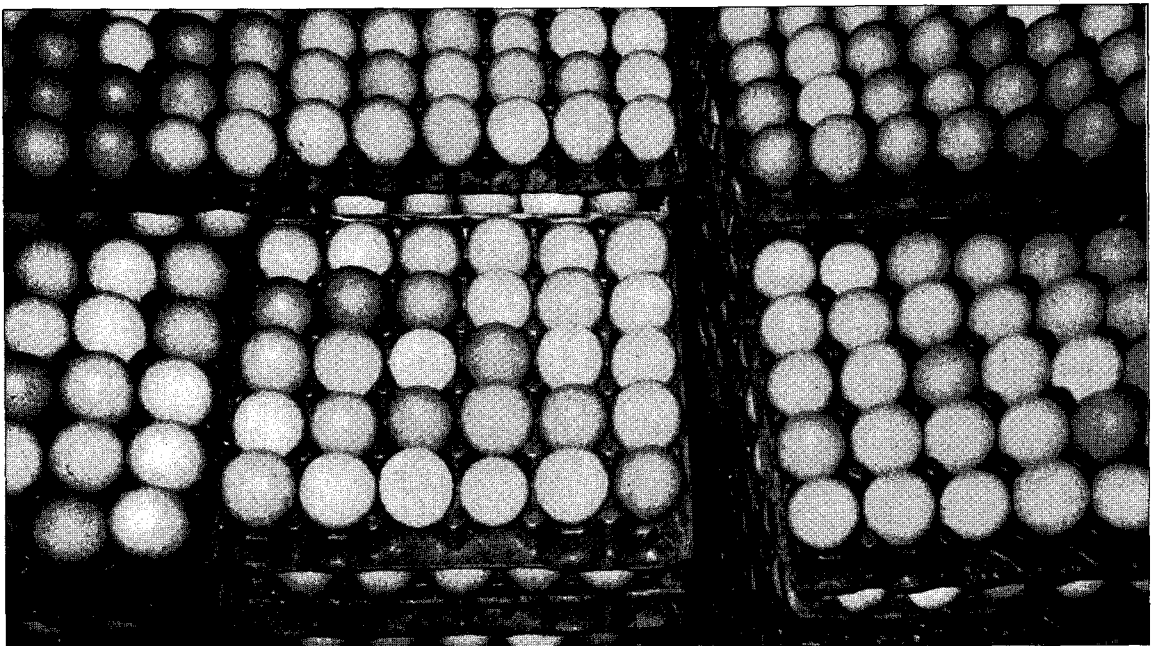
“
**지방조합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0년도에는
 성남을 포함한 5개소에
 집하장 및 공판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
 조합중심의 G.P 산업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

로 보인다.

일단 집하장의 선별기를 거친 계란은 1회용 난좌에 담겨 출하가 되기 때문에 상품적 가치를 높이

고 있다.

아직은 판로가 좁아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어 조합원이 원하는대로 물량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소비처를 확보하여 국내 G. P 산업의 정착을 통한 생산조건 기능까지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나아가 수입개방에 따른 액란 수입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생산자 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조합 활성화는 물론 집하장, 공판장의 기능도 보다 합리적으로 채란양계인들이 적극적인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회용 난좌를 사용해 위생적인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